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40차 CATI조사

제55차 ARS조사

평일조사 CATI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강서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20일(수)부터 9월 21일(목)까지 양일간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100%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시스템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수는 515명, 총 통화시도 5,154명, 응답률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4.3\%$ p입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셀가중 값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경기도 고양시 갑 선거구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20일(수)부터 9월 21일(목)까지 양일간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100%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시스템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수는 511명, 총 통화시도 4,821명, 응답률 10.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4.3\%$ p입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셀가중 값을 부여했습니다.

금토 정례조사 CATI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22일(금)부터 9월 23일(토)까지 양일간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100%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시스템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수는 1,017명, 총 통화시도 9,601명, 응답률 10.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p입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셀가중 값을 부여했습니다.

ARS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22일(금)부터 9월 23일(토)까지 무선RDD를 활용,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수 1,006명, 총 통화시도 45,029명, 응답률 2.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pm 3.1\%$ p입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2023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림가중 값을 부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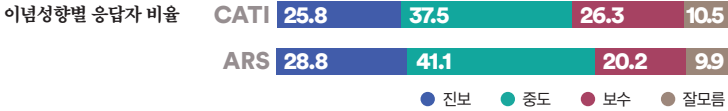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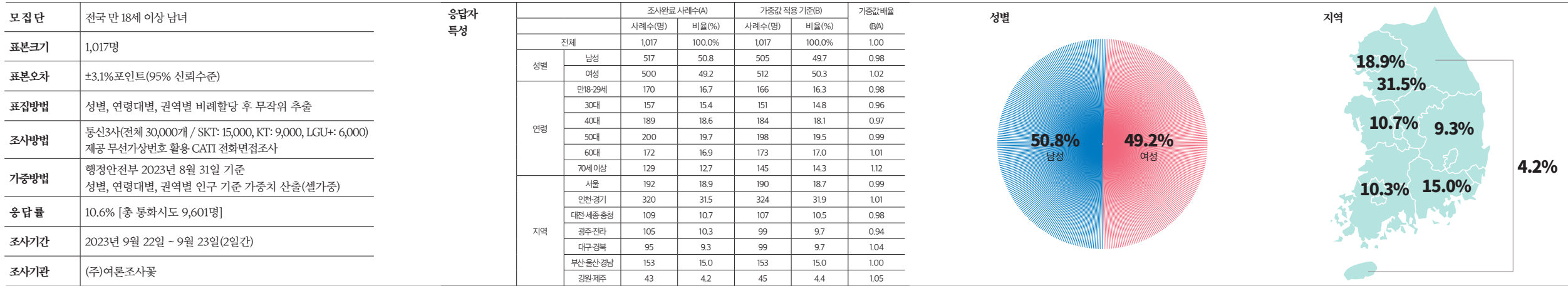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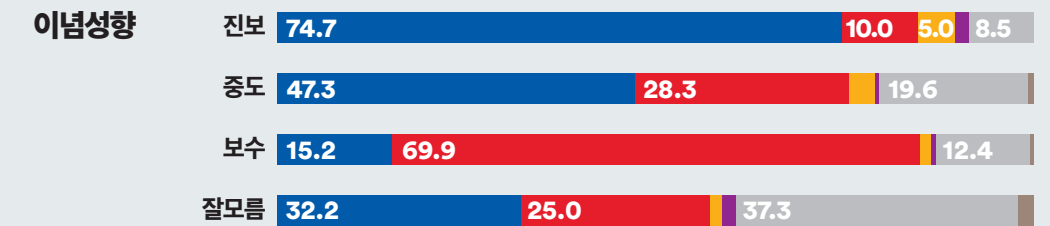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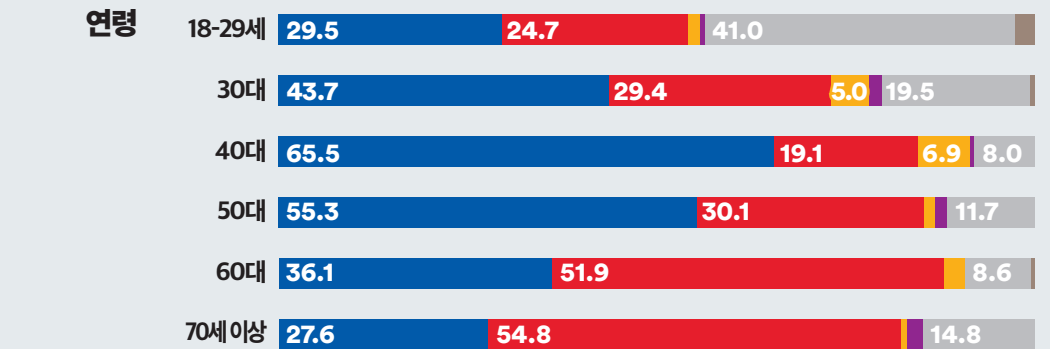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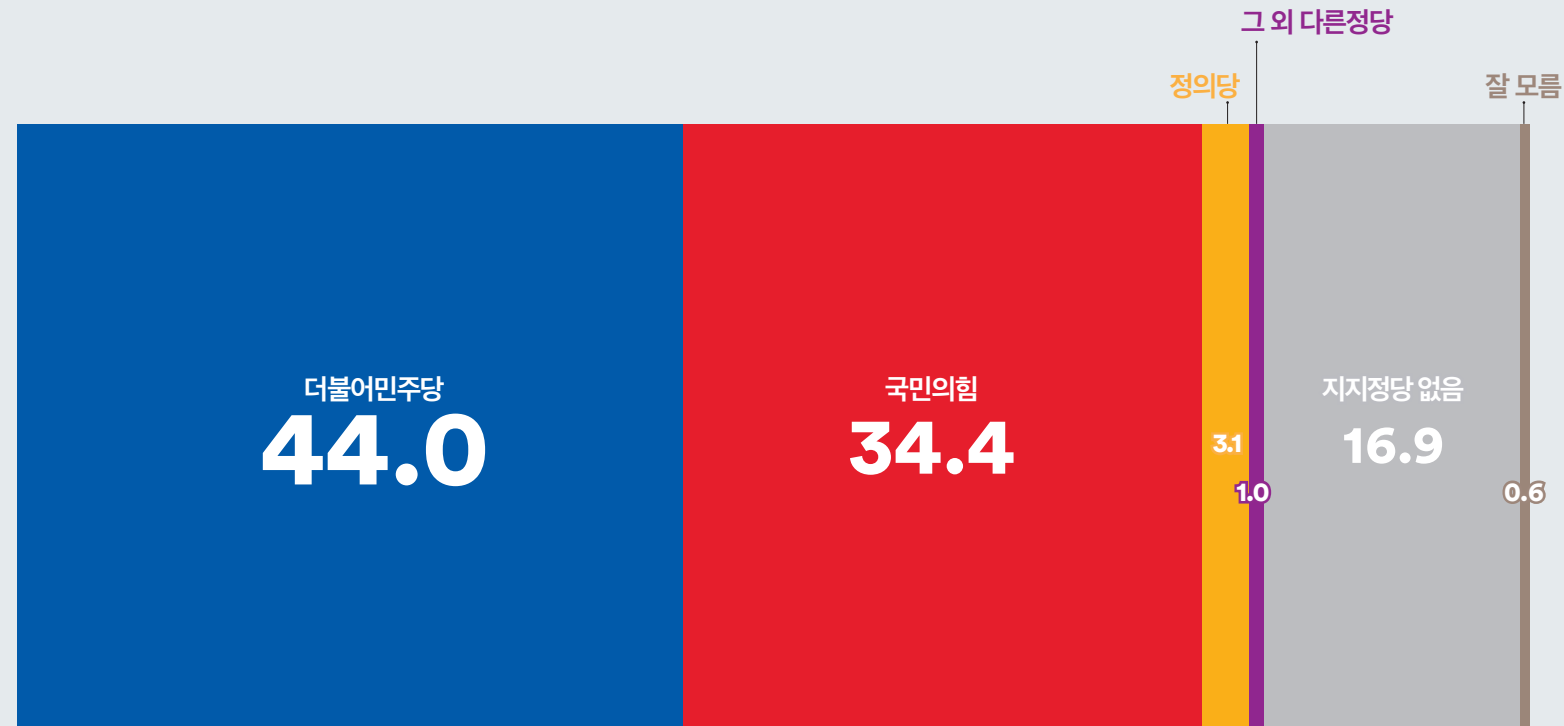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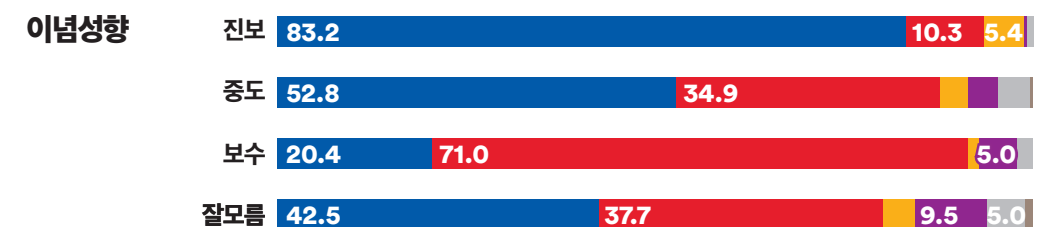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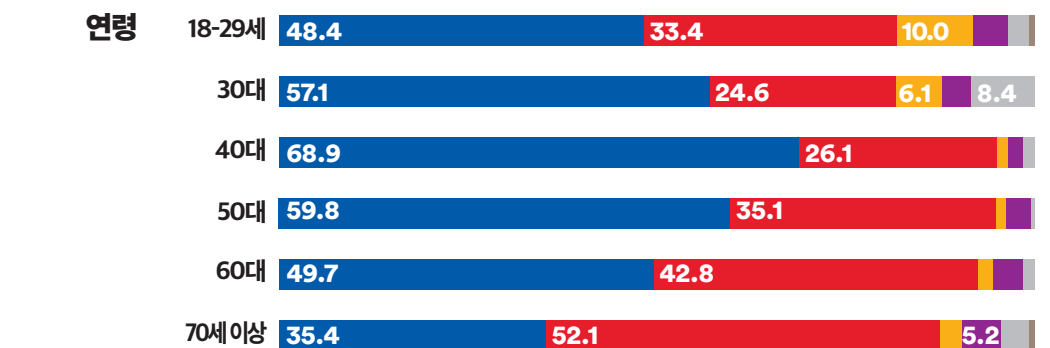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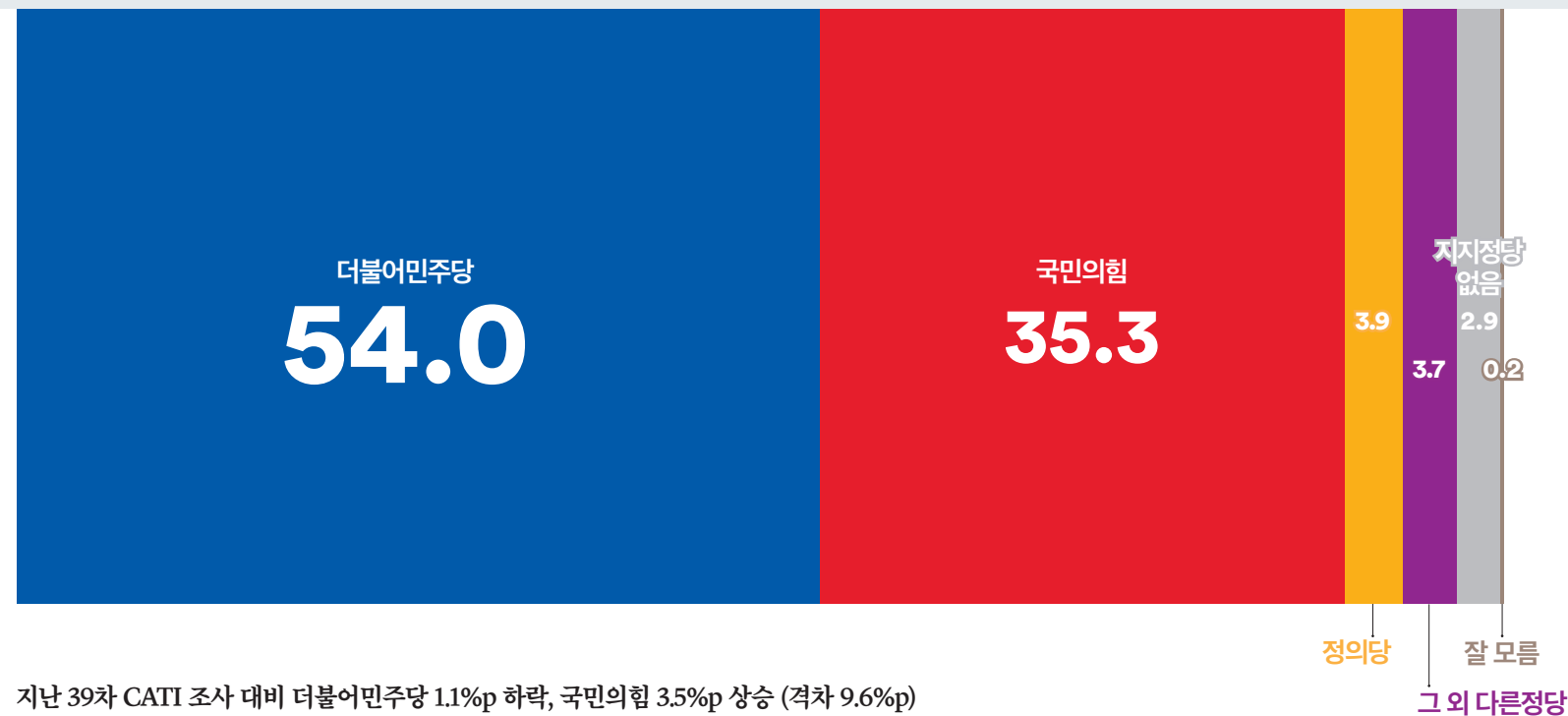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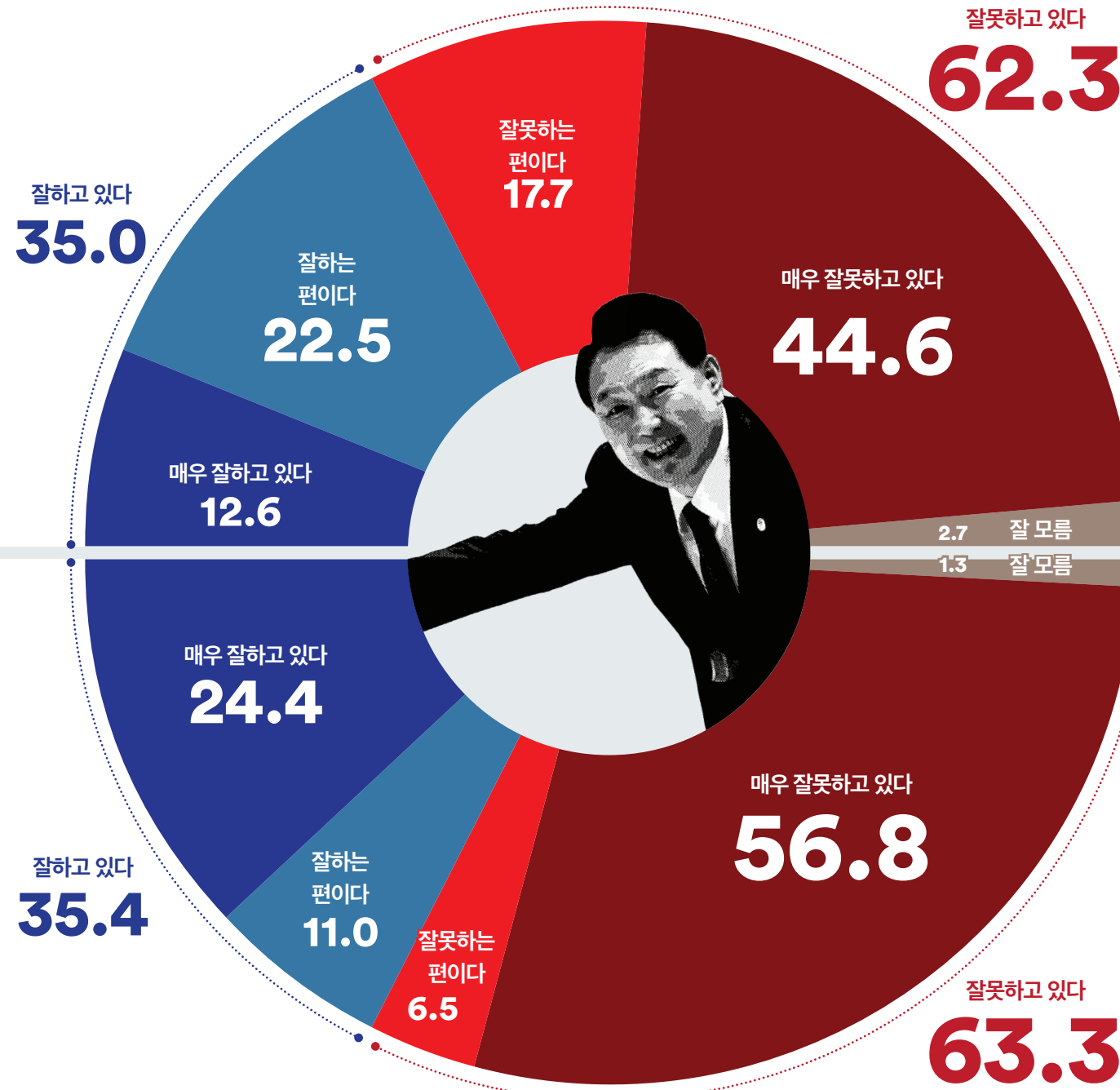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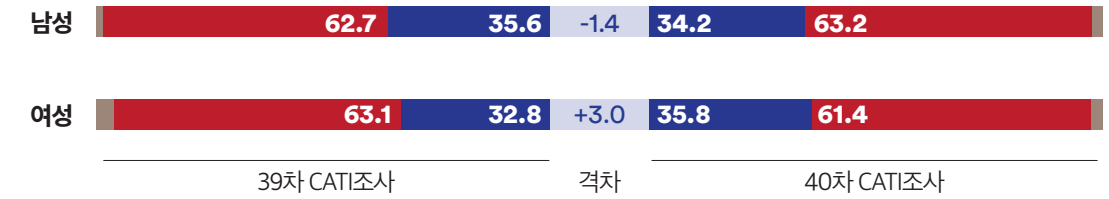
지난 39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1%p 하락, 국민의힘 3.5%p 상승 (격차 9.6%p)
 지난 54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6%p 상승, 국민의힘 0.3%p 상승 (격차 18.7%p)
 두 조사 모두 진보층과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에서 크게 하락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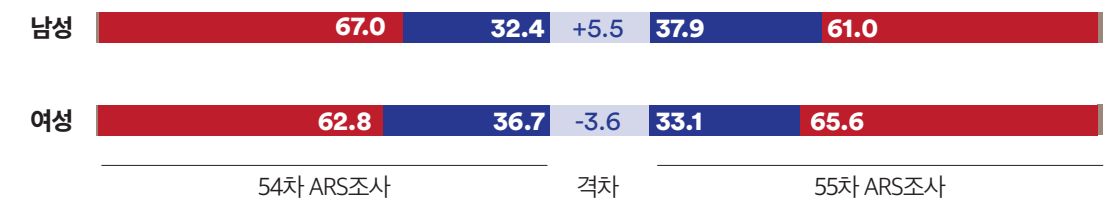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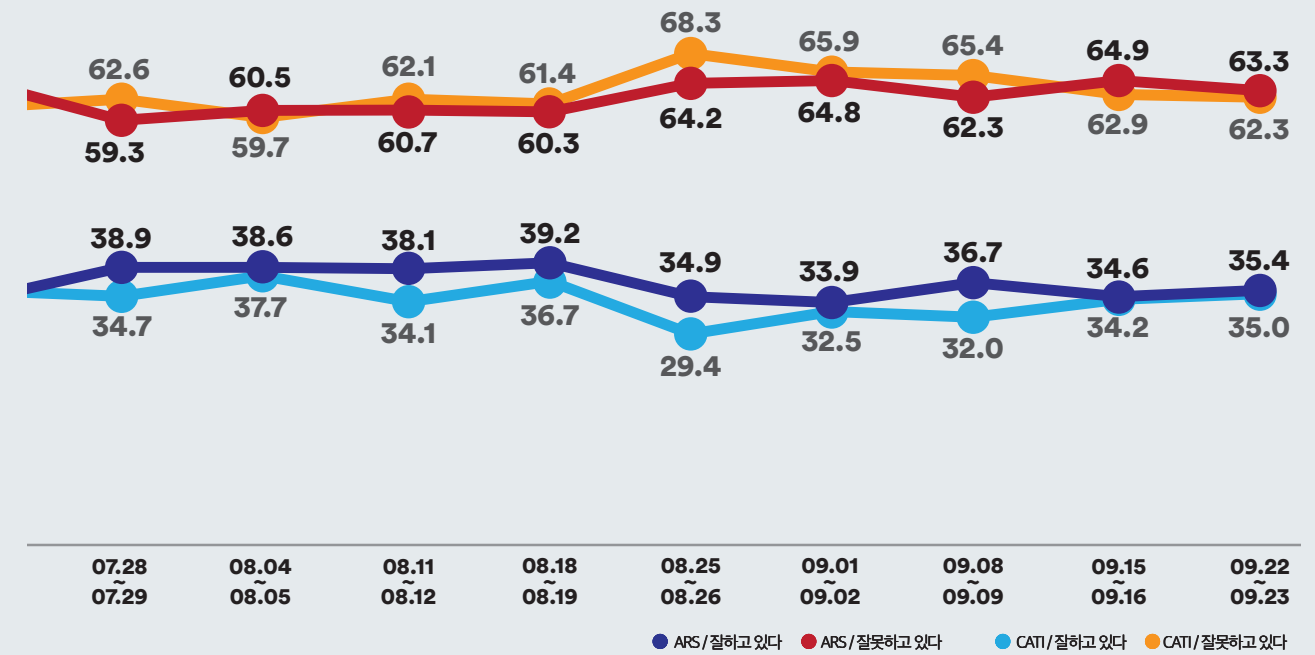
CATI



지난 39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8%p 상승, '부정'평가 0.6%p 하락 (격차 27.3%p)
 지난 54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8%p 상승, '부정'평가 1.6%p 하락 (격차 27.9%p)
 남녀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정' 평가 앞서고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 앞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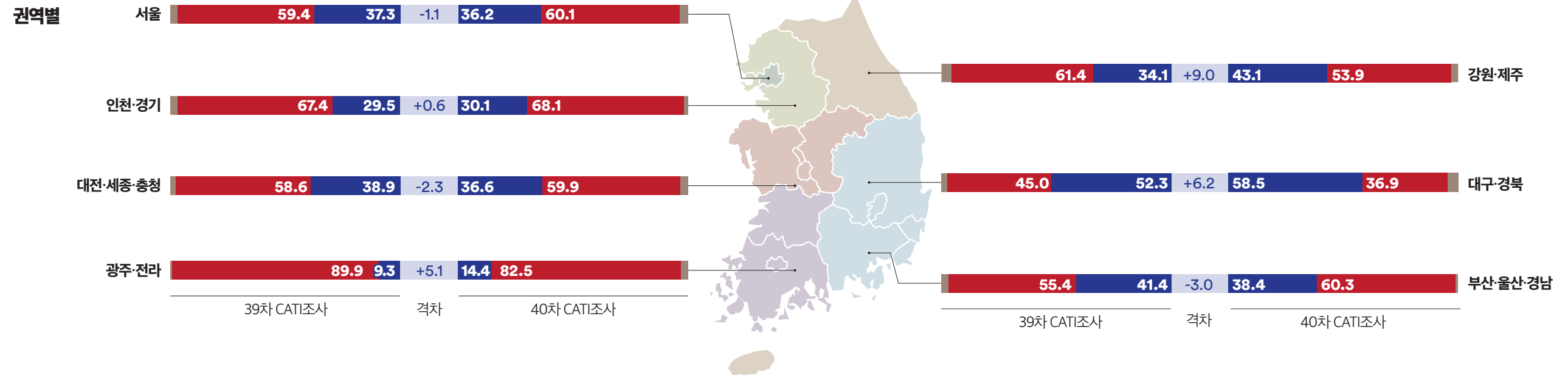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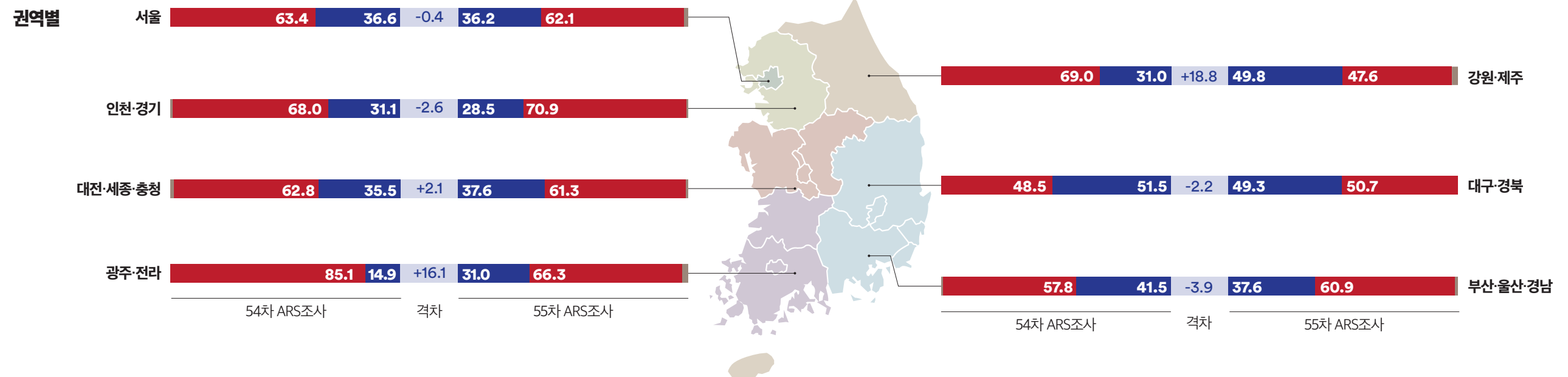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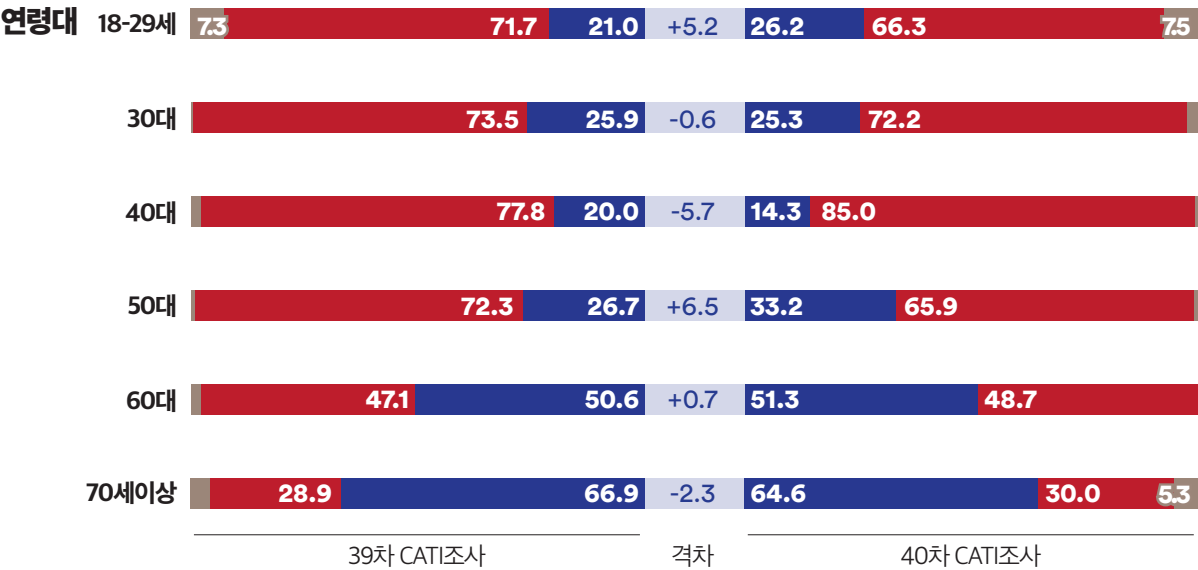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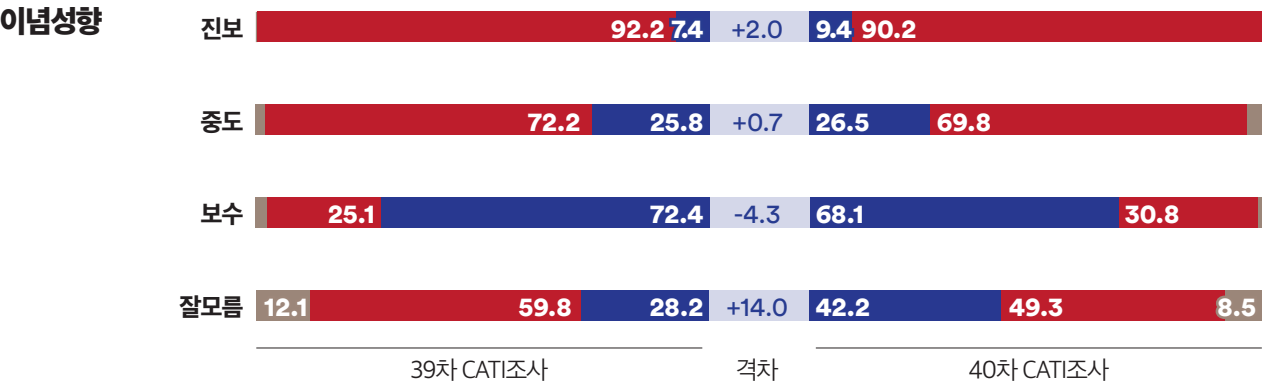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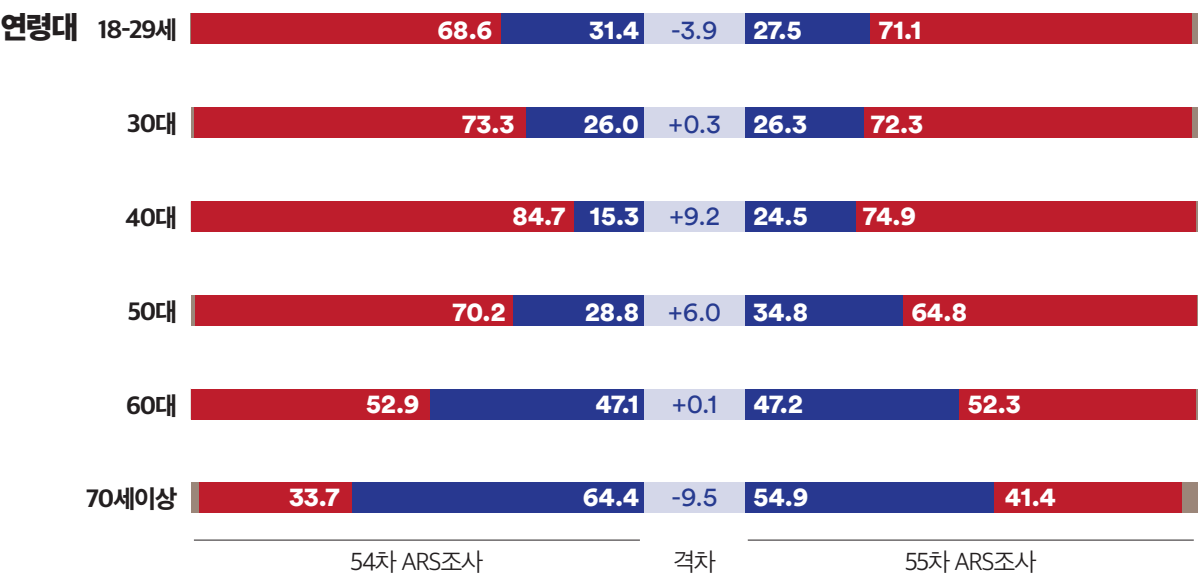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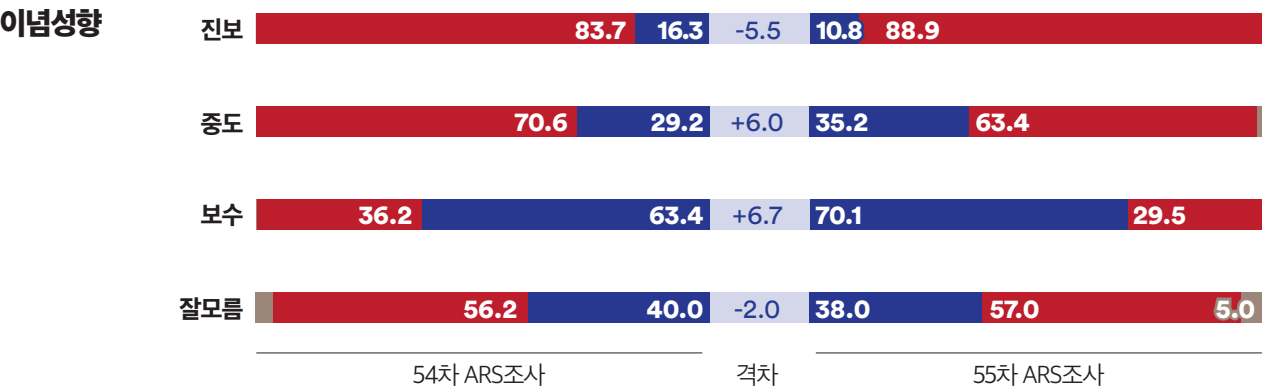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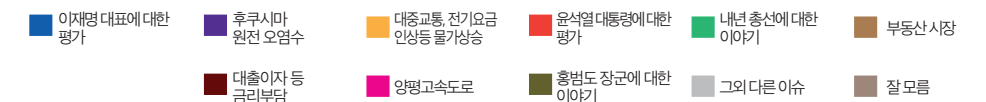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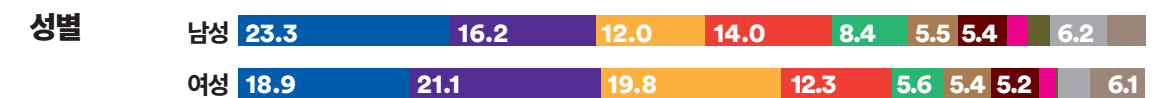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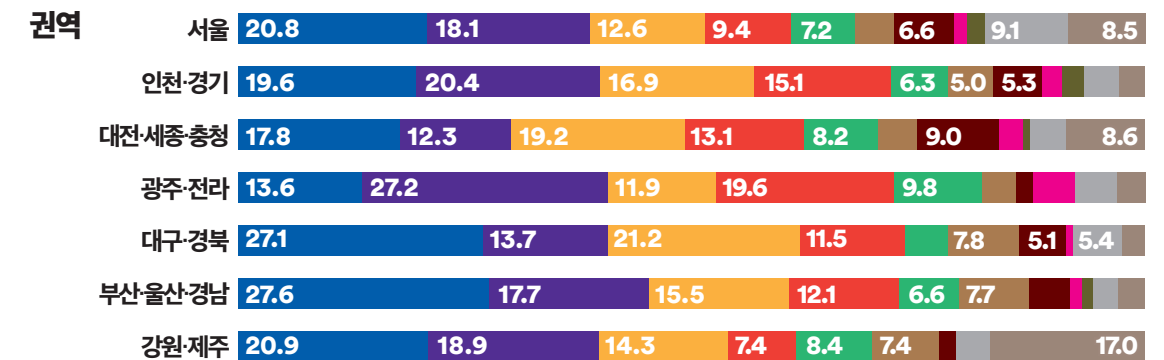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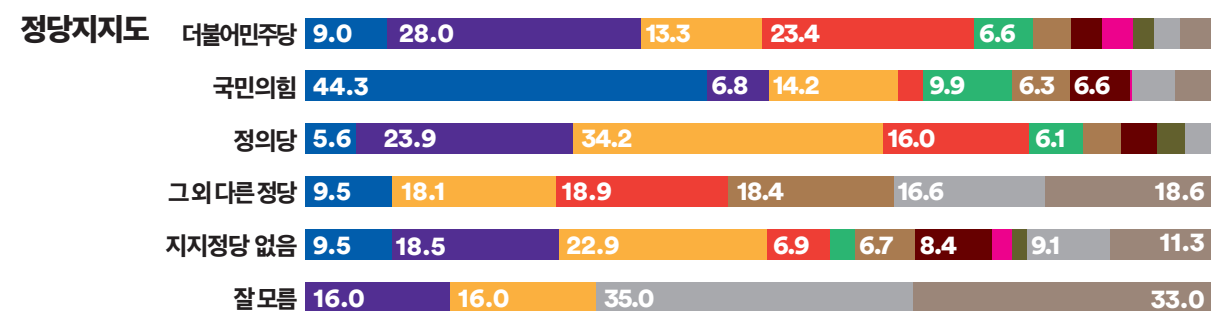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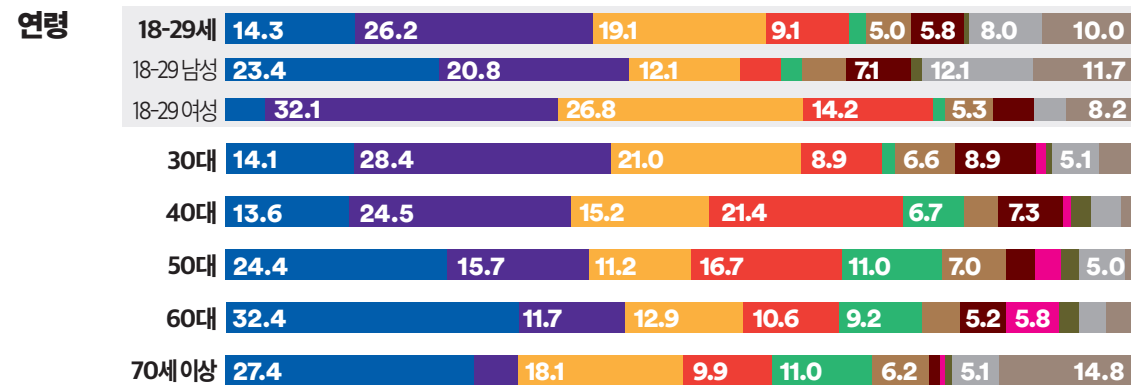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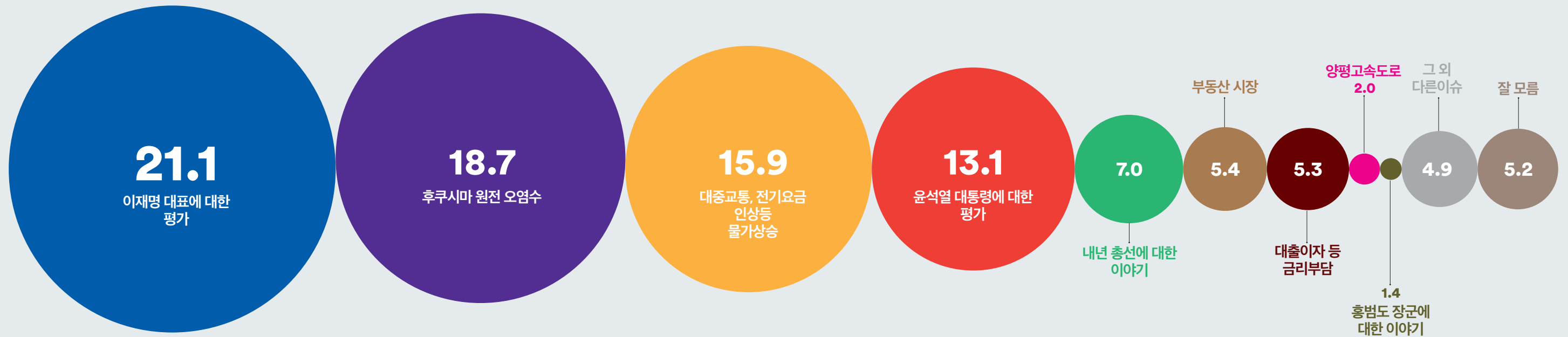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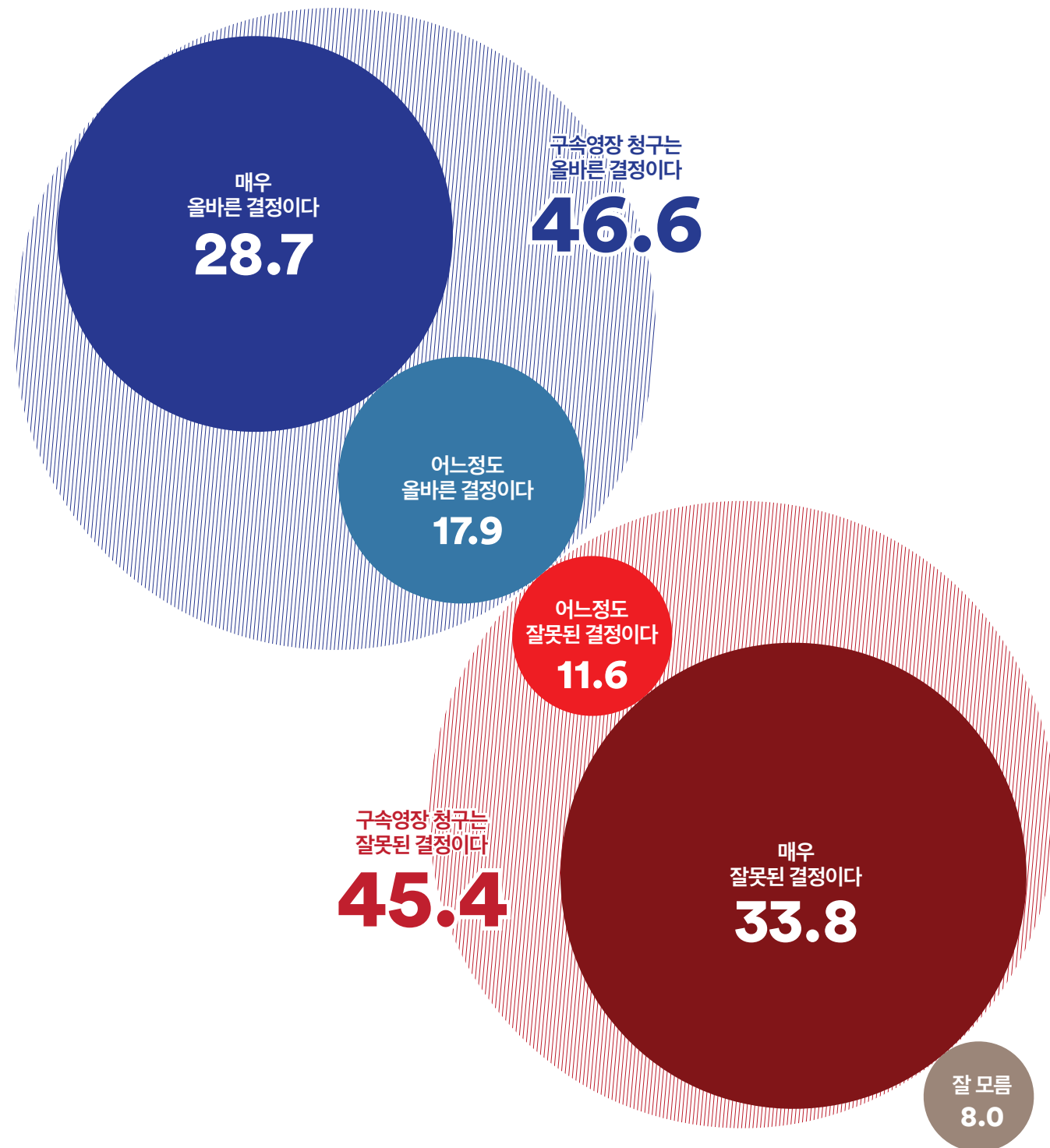
Q.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 지인들과 대화에서 주로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호남은 ‘후쿠시마 오염수’, T·PK는 ‘이재명 대표 평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40대 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50대 이상은 ‘이재명 대표 평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진보층은 ‘후쿠시마 오염수’, ‘윤 대통령 평가’ 순, 보수층은 ‘이재명 대표 평가’, ‘물가 상승’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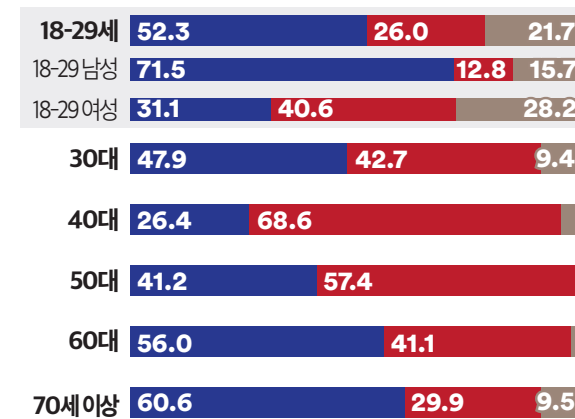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Q. 단식 중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은 이송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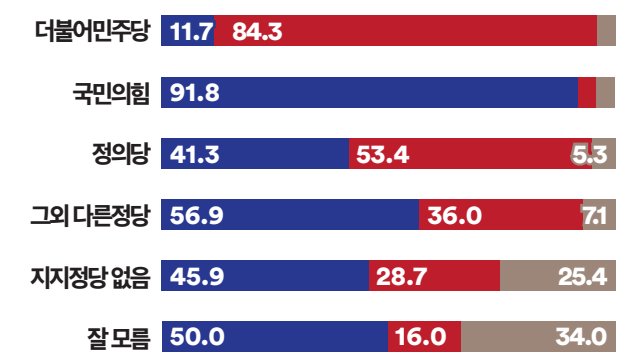


호남권은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이, TK권은 '올바른 결정'이란 응답이 우세
호남과 경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대부분에서 '올바른 결정'이란 응답이 앞섬
40·50대는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이 우세하나 나머지 연령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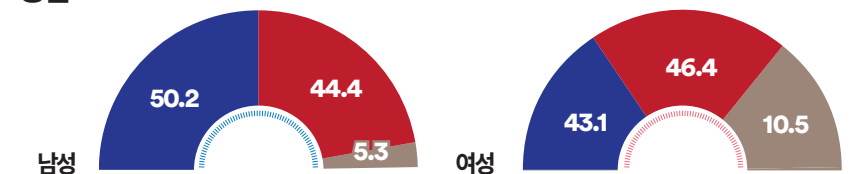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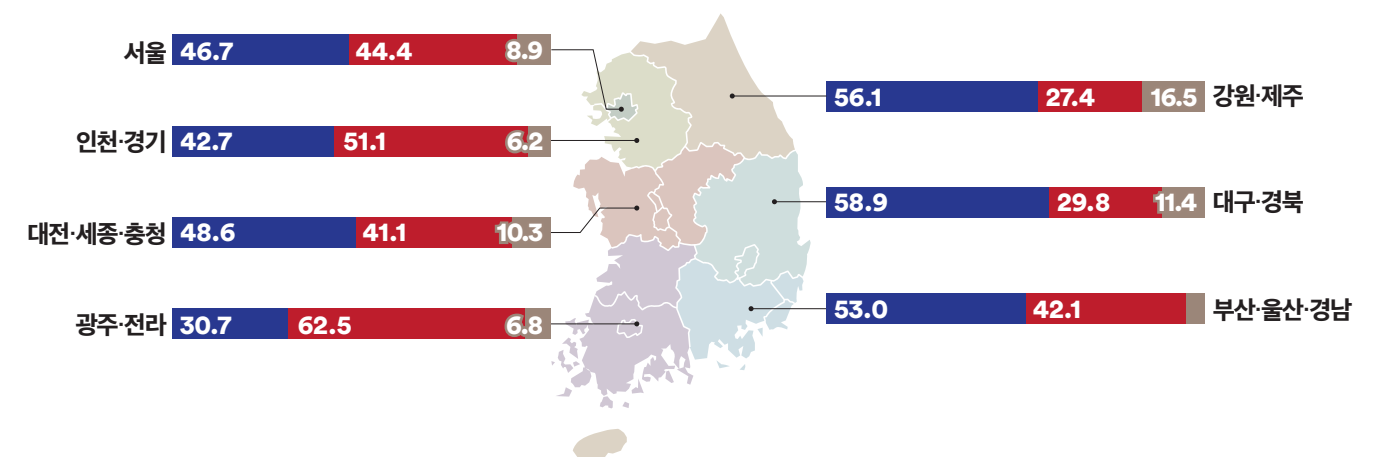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올바른 결정 ■ 잘못된 결정 ■ 모르겠다



Q.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적절하다

50.7

매우 적절하다
33.6

어느정도
적절하다
17.1

별로
적절하지 않다
1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28.1

7.7 잘 모름

4.1 잘 모름

37.1

매우 적절하다

44.8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적절하다

7.7

어느정도
적절하다

8.7

별로
적절하지 않다

42.5

전혀 적절하지 않다

51.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적절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적절하지 않다

41.7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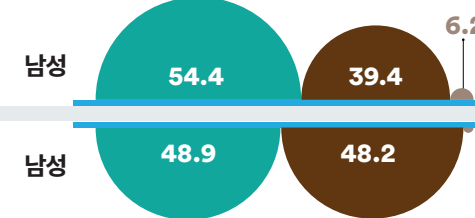
권역

서울	50.3	42.3	7.4
인천·경기	46.7	45.5	7.9
대전·충청·세종	52.6	38.4	9.0
광주·전라	38.6	56.5	
대구·경북	60.6	27.1	12.3
부산·울산·경남	56.2	40.1	
강원·제주	62.4	24.1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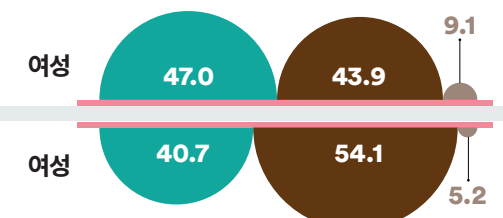
연령

18-29세	51.9	25.2	22.9
18-29 남성	64.3	14.2	21.5
18-29 여성	38.3	37.3	24.4
30대	45.8	43.2	11.0
30대 남성	52.1	39.0	8.9
30대 여성	39.2	47.6	13.3
40대	30.0	66.1	
50대	46.7	51.6	
60대	64.1	35.3	
70세 이상	69.9	21.9	8.2

성별



성별



권역

서울	48.4	45.9	5.7
인천·경기	38.9	59.1	
대전·충청·세종	47.4	49.7	
광주·전라	32.6	58.5	8.9
대구·경북	58.4	39.4	
부산·울산·경남	43.8	50.5	5.7
강원·제주	66.0	31.6	

연령

18-29세	45.0	46.5	8.5
18-29 남성	60.5	34.5	5.0
18-29 여성	25.5	61.7	12.8
30대	41.4	54.9	
40대	34.6	63.8	
50대	40.8	57.7	
60대	52.0	48.0	
70세 이상	57.7	31.3	11.0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CATI 조사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ARS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해 조사 방법간 차이를 보임
두 조사 모두 40·50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서고, 70세 이상 남성, 20대 남성 순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Q.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은
적절하다

50.4

어느정도
적절하다
17.0

별로
적절하지 않다
15.8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은
적절하지 않다

36.5

전혀 적절하지 않다
20.7

13.1 잘 모름

7.3 잘 모름

매우 적절하다
33.4

46.2
매우 적절하다

2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11.7
별로
적절하지 않다

10.1
어느정도
적절하다

56.3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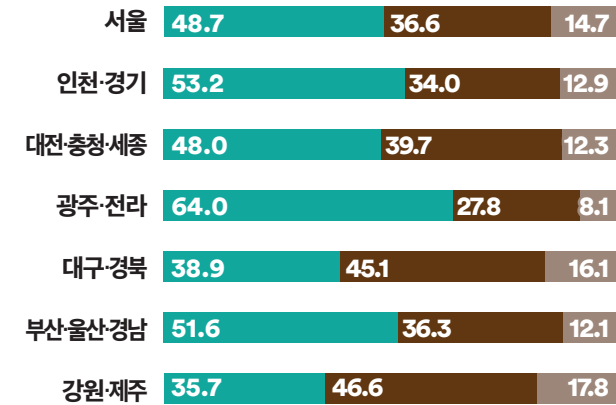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은
적절하지 않다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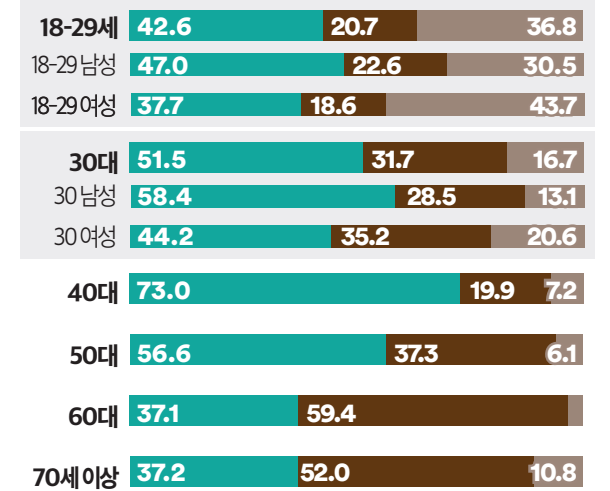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CATI 조사에서는 20-50대, ARS 조사는 30-50대에서 '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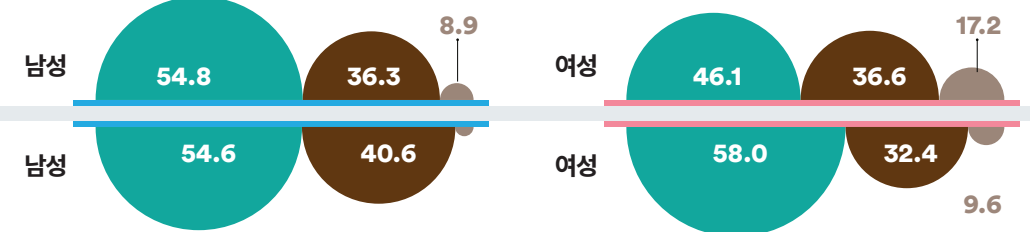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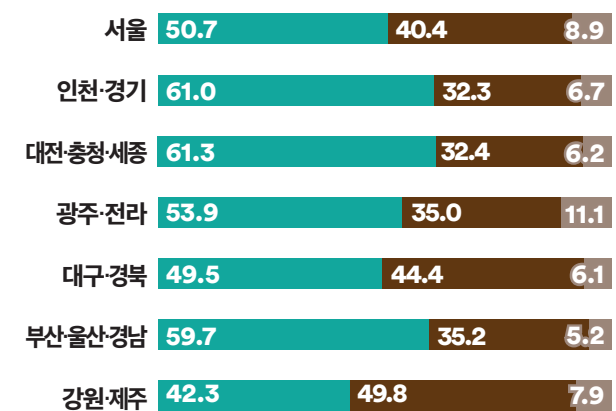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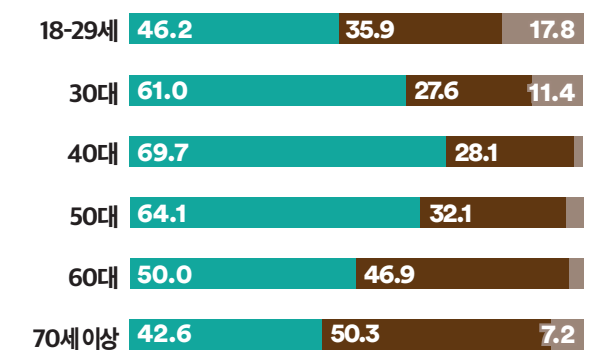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 적절성

Q.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야전사령관 경험을 가진 장성 출신으로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연설문 내용, 조갑제닷컴 누리집 발췌]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61.2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

24.0

잘 모름

14.8

ARS

63.1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24.2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름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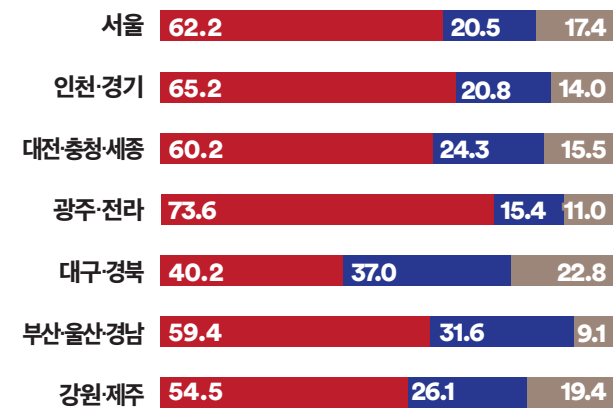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지명 철회’ 의견이 앞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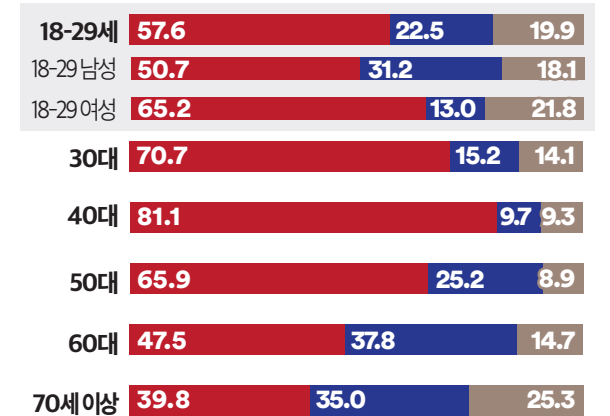
50대 이상 응답층(ARS 조사는 60대 포함)에서는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두 조사의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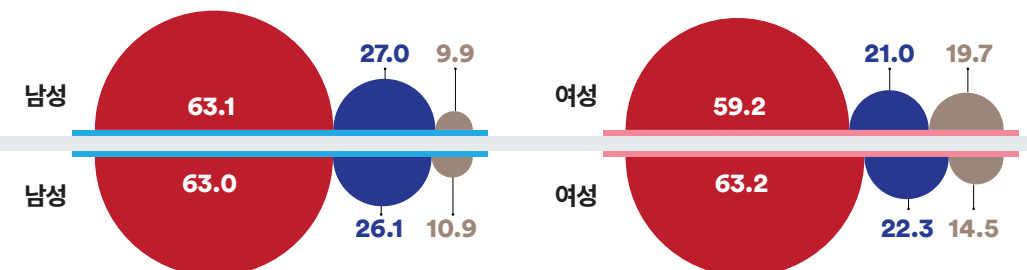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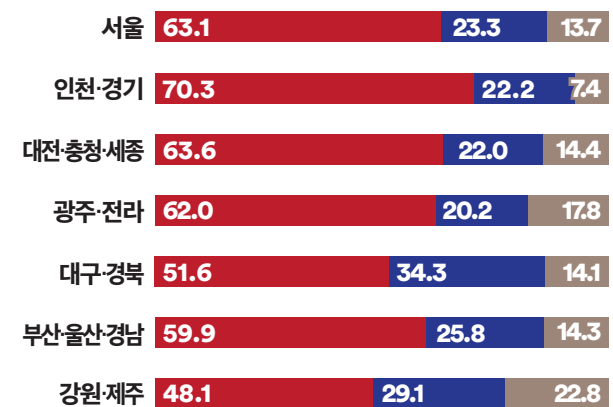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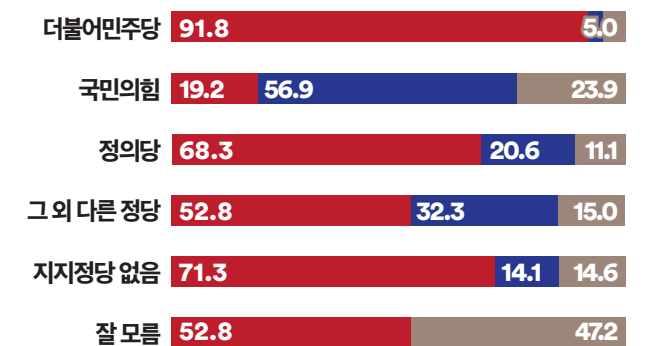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장관 지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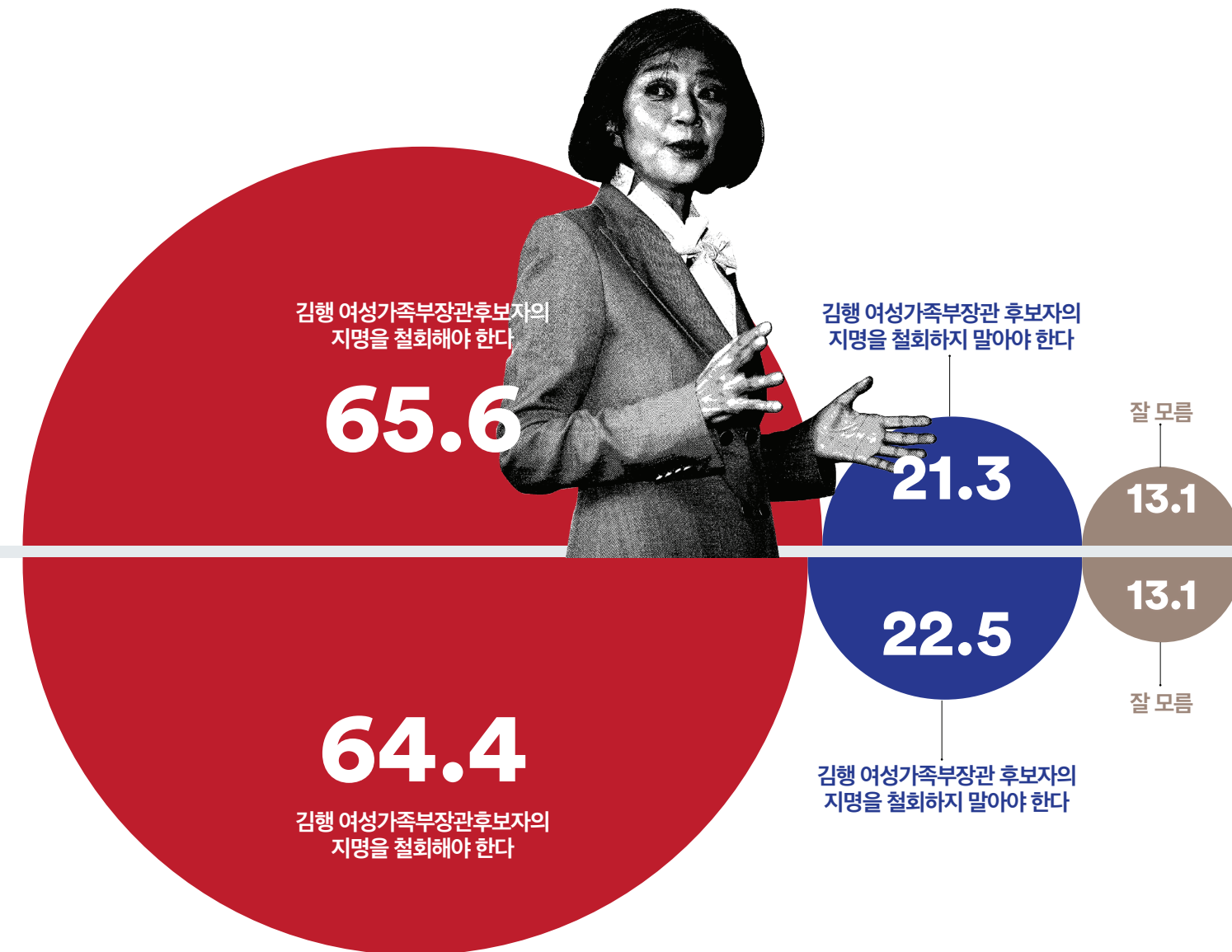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 적절성

Q.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변인 출신으로, 백지 신탁한 재산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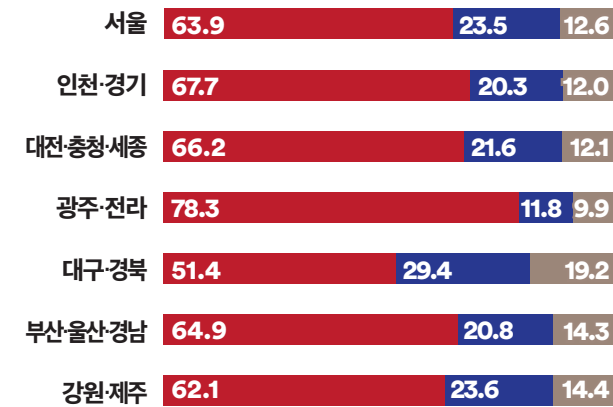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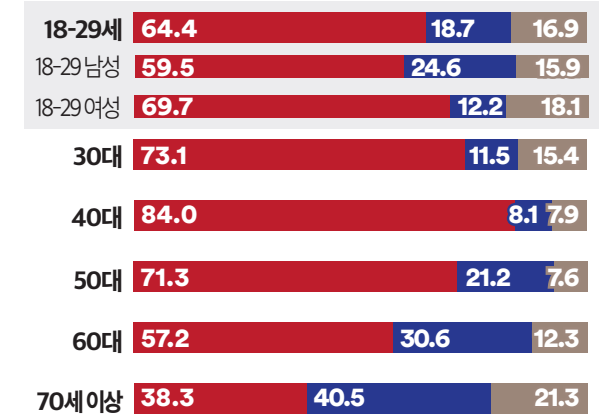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
 ARS 조사의 강원·제주 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CATI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두 조사의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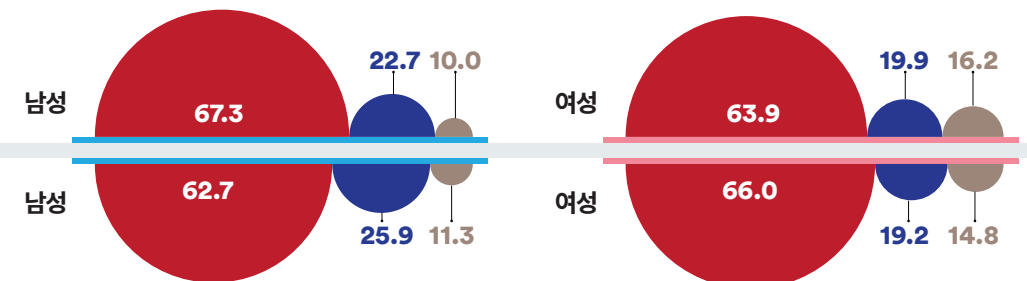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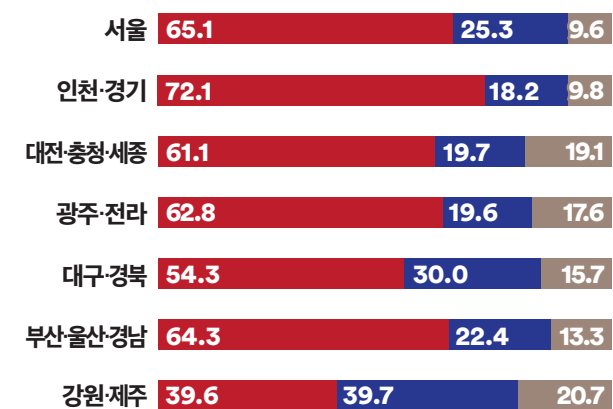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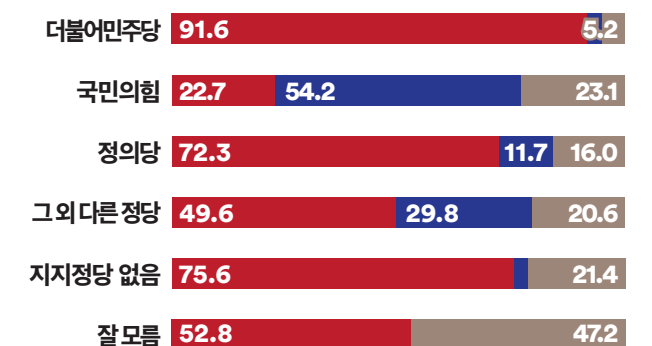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Red) 장관 지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 (Blue) 모르겠다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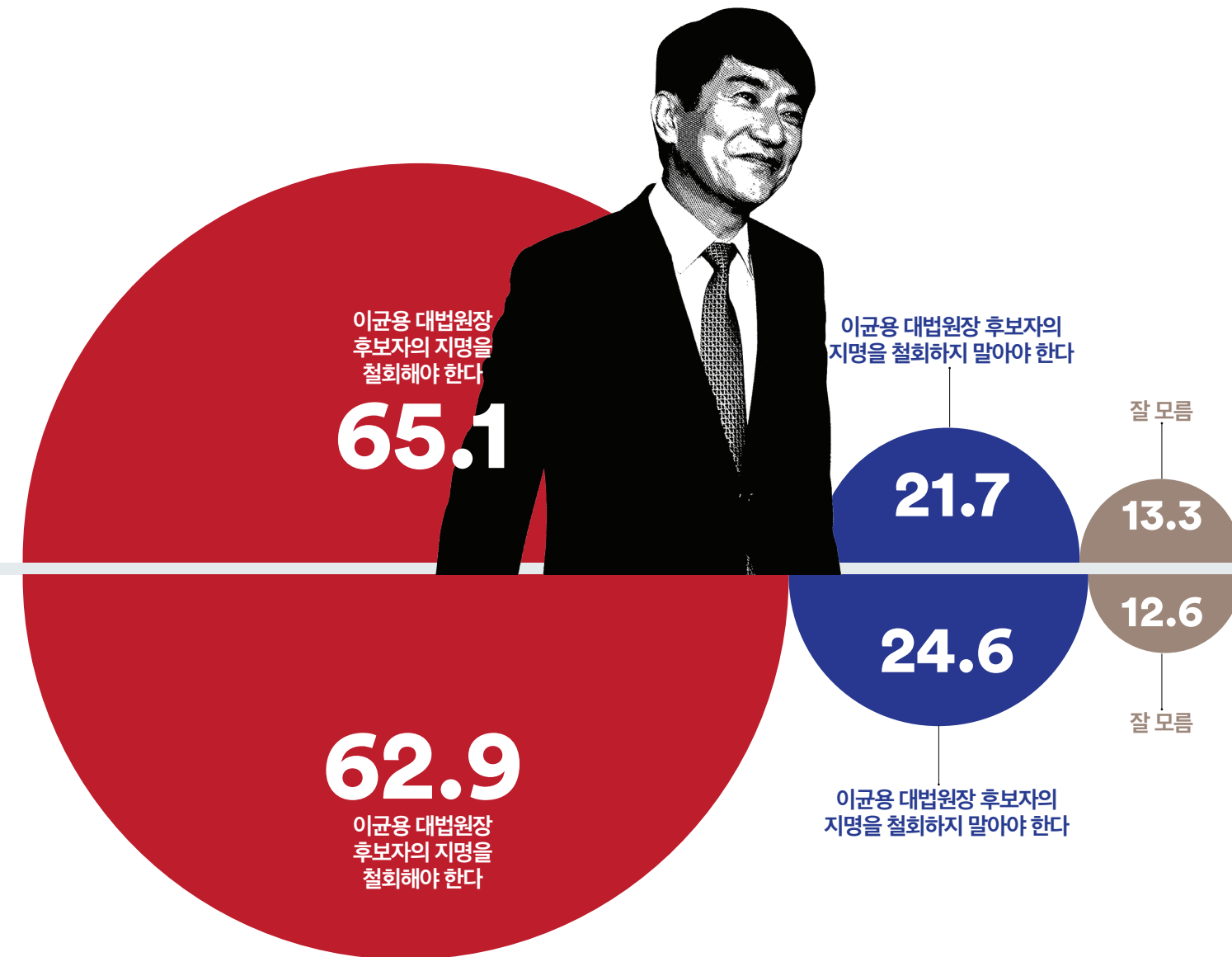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적절성

Q.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30년 경험의 법관 출신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약 10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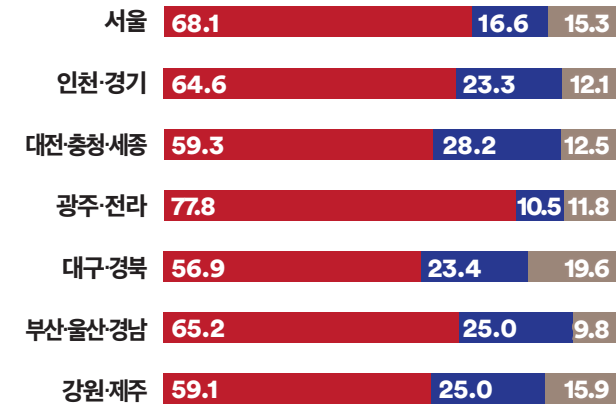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정적 의견

ARS 조사의 강원·제주 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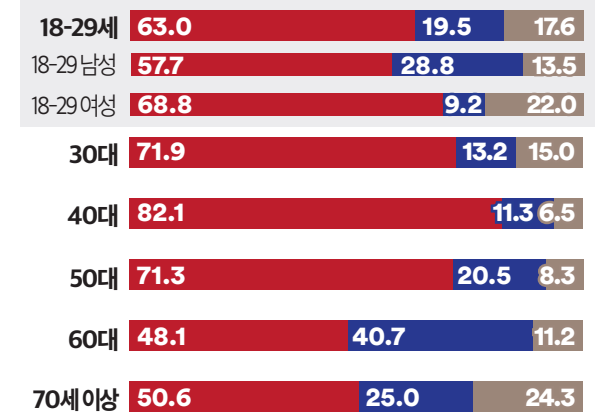
CATI 조사는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ARS 조사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지명 철회' 응답 우세

두 조사의 50대 이하 남·녀 모두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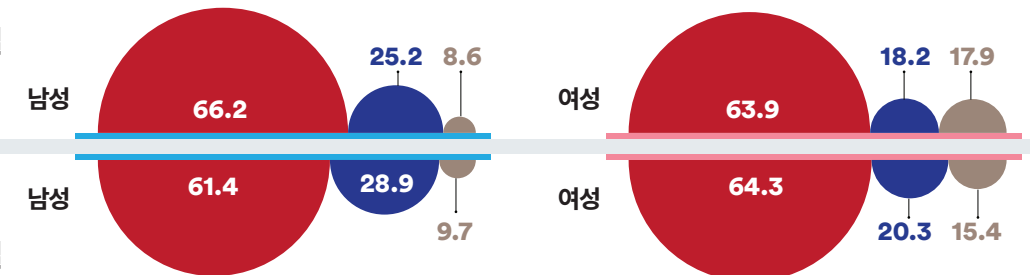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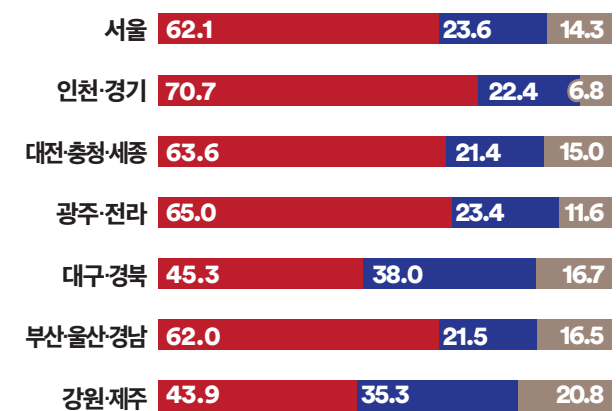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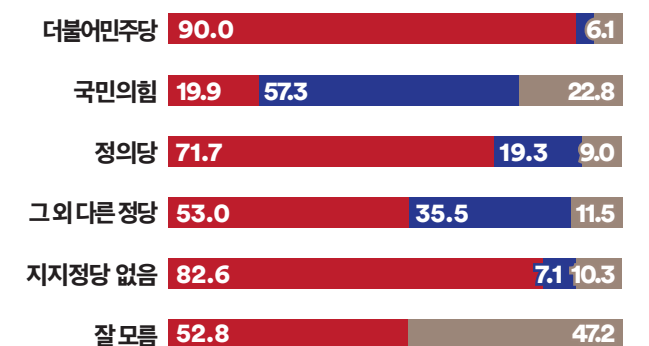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빨간색)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 (파란색)
모르겠다 (회색)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9월 종합 분석



CATI & ARS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0$

정례조사 기준 ARS $n=4024$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9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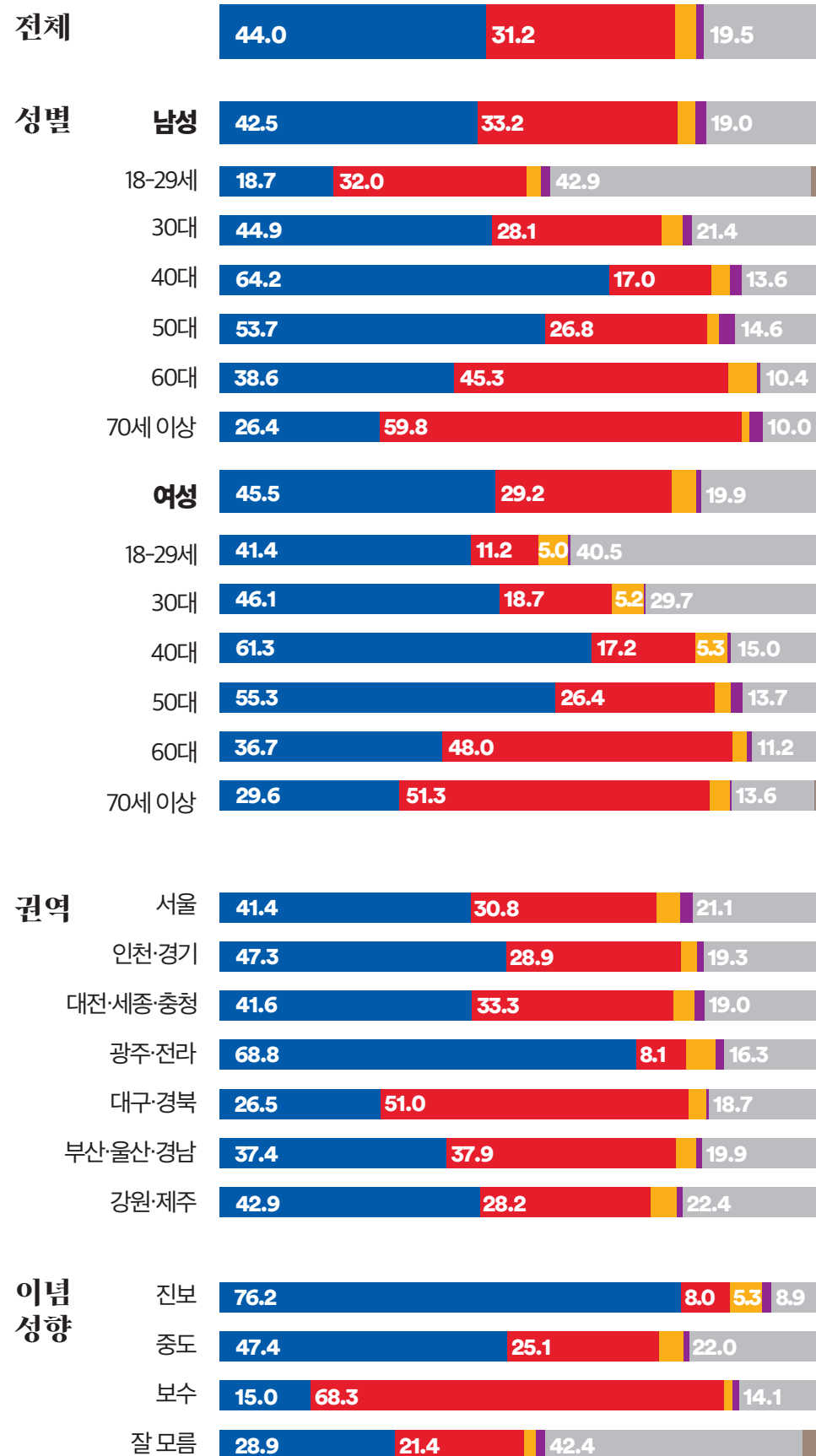
CATI

정례조사 기준 n=4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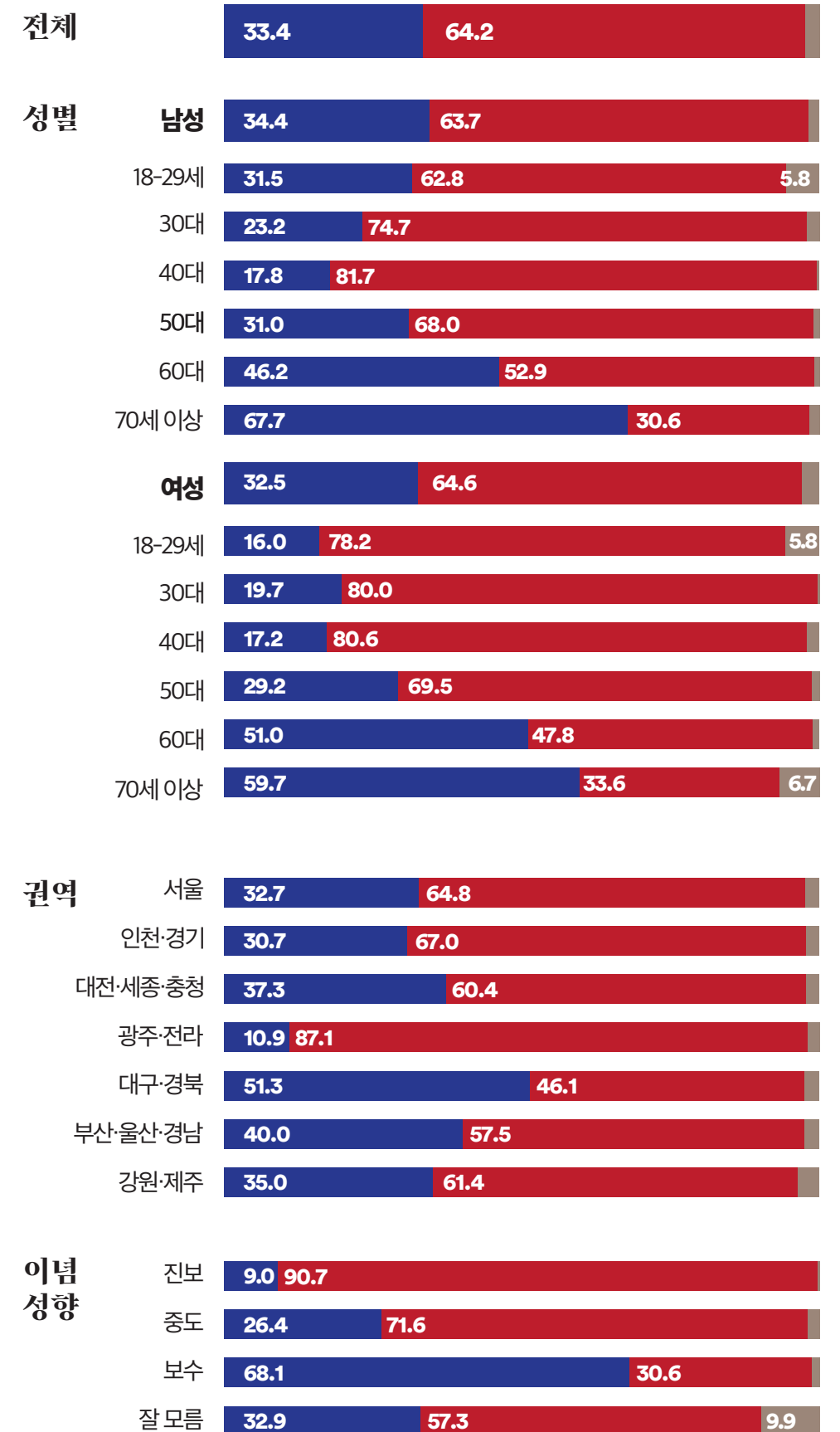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9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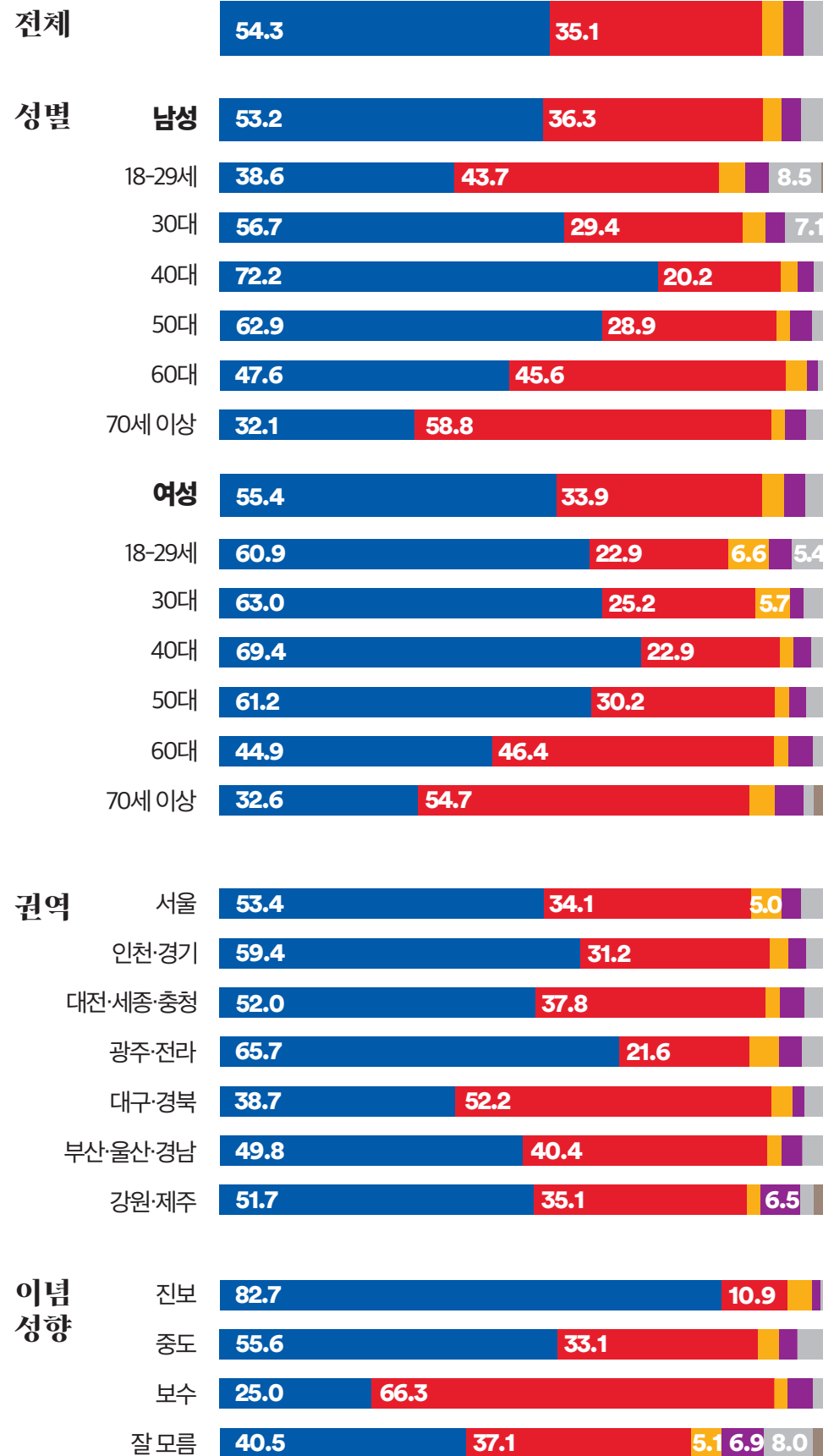
ARS

정례조사 기준 n=4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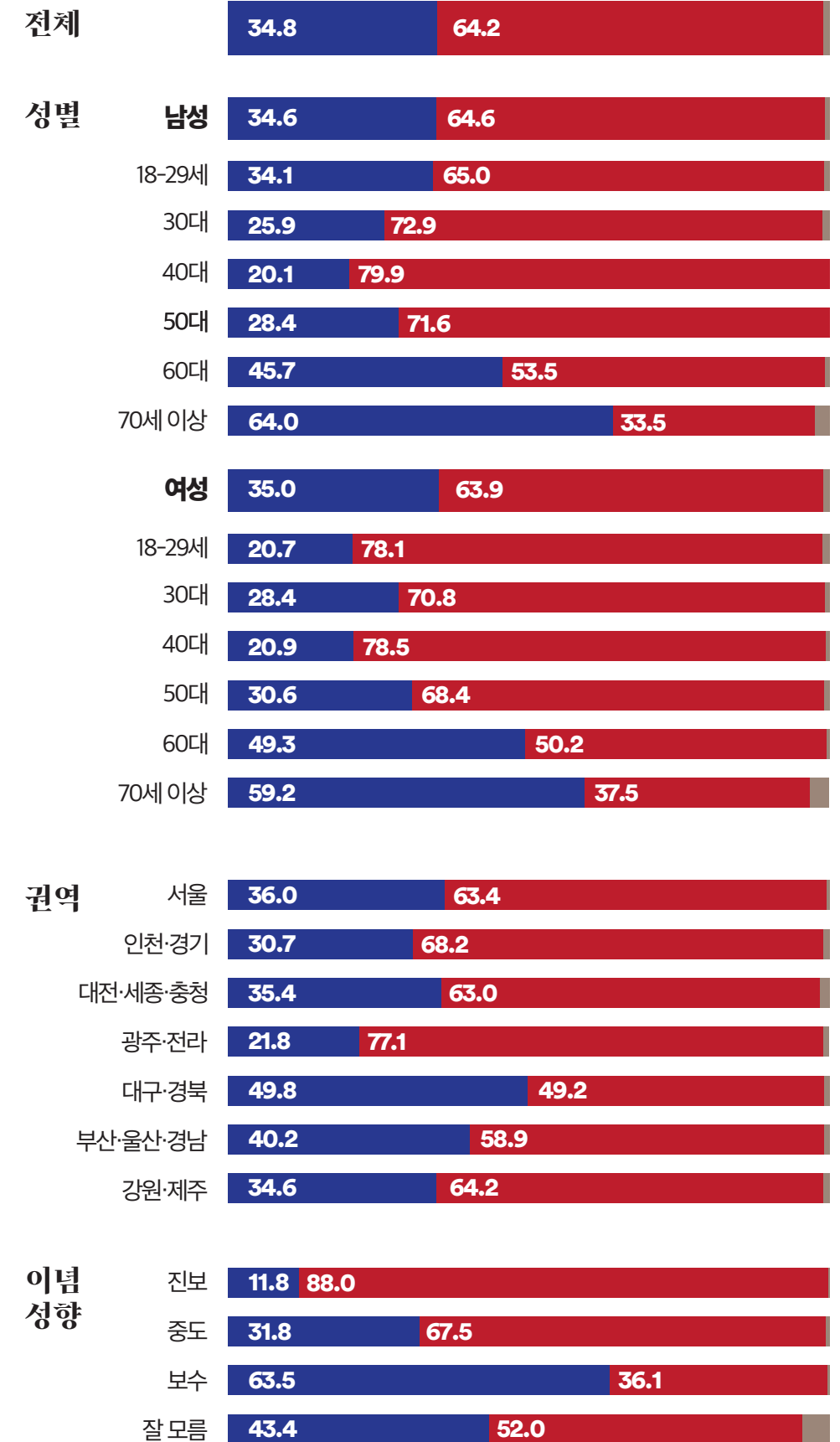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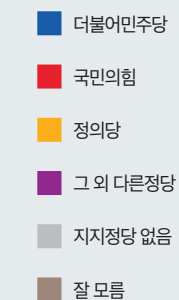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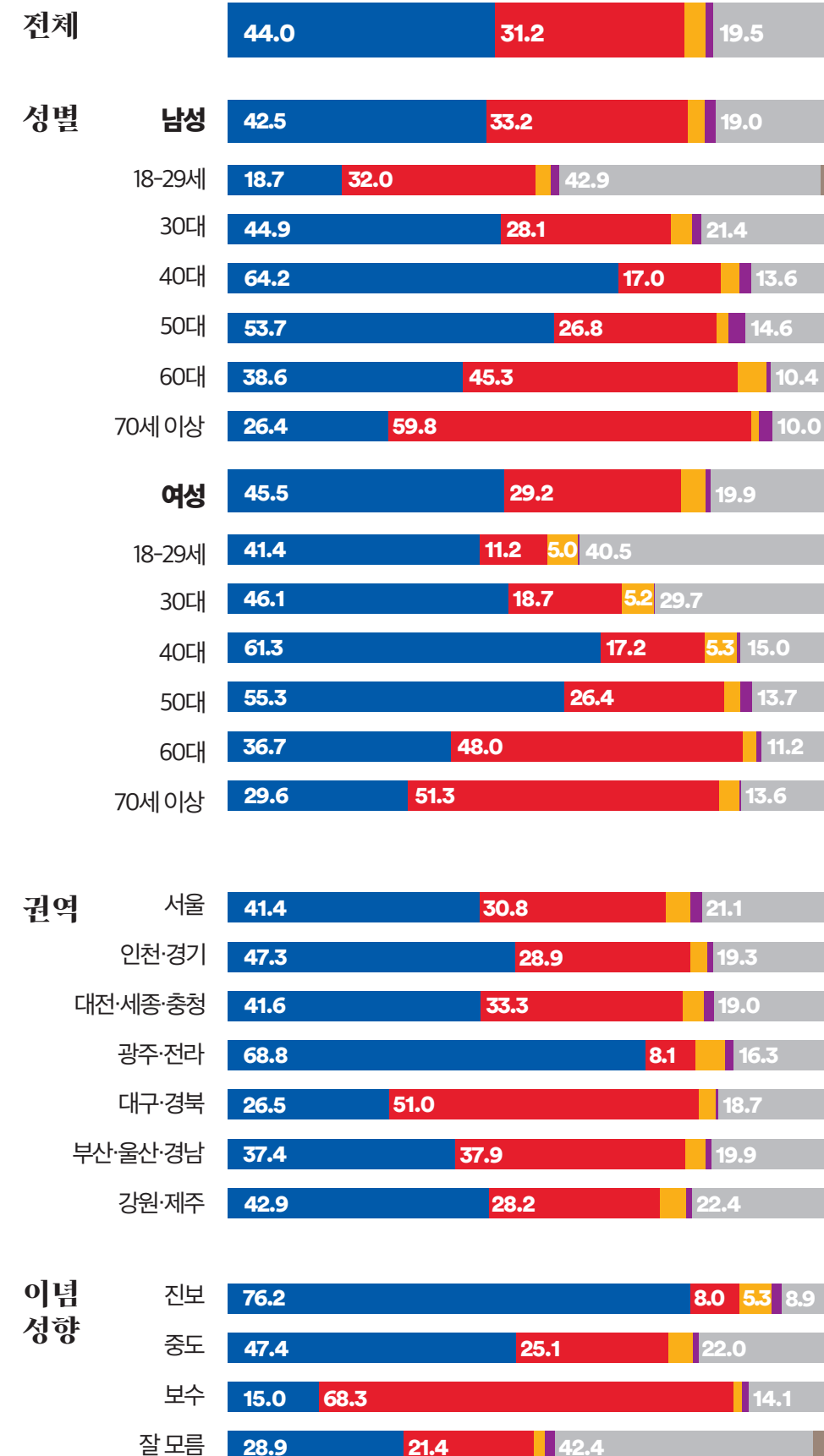
9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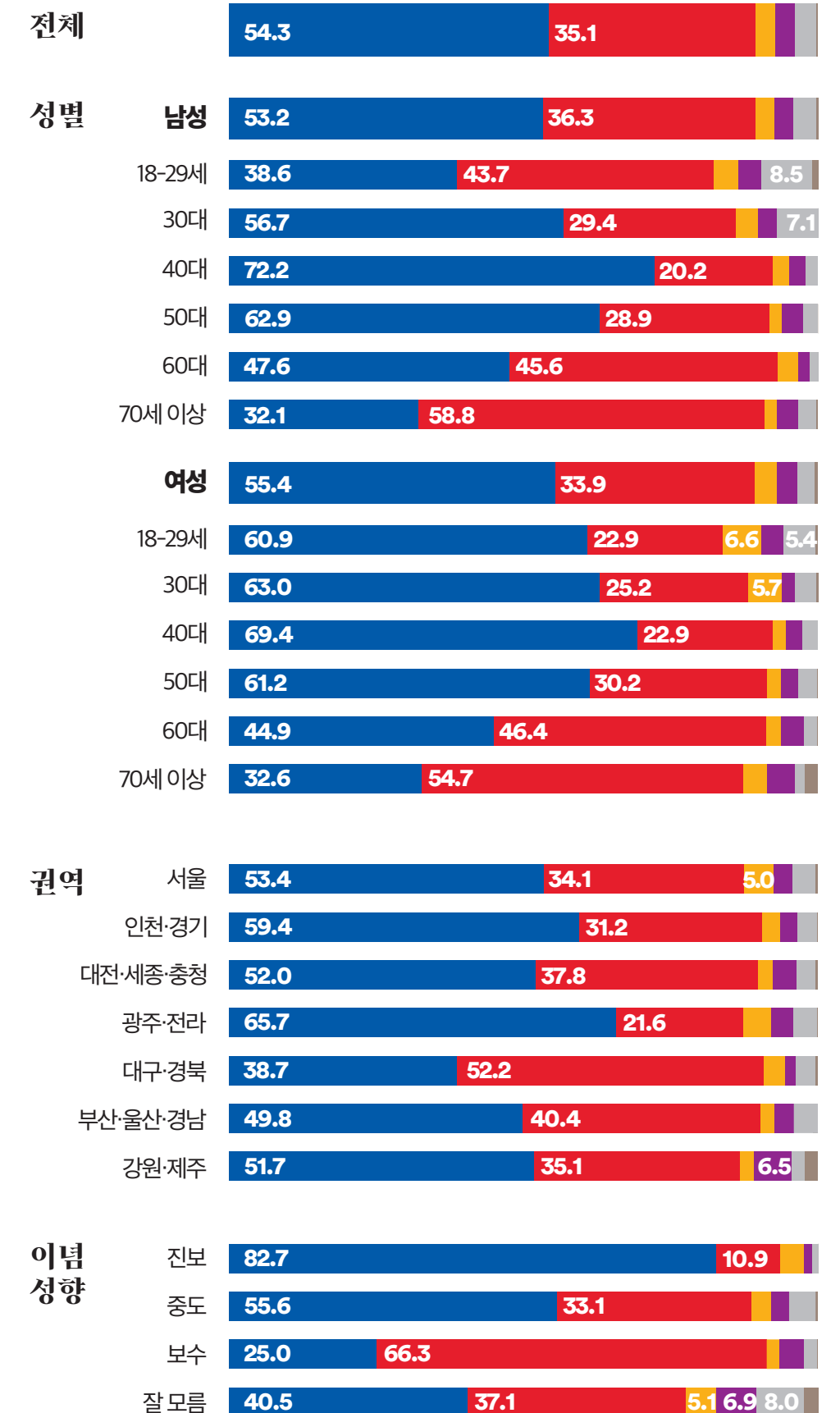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0
정례조사 기준 ARS n=4024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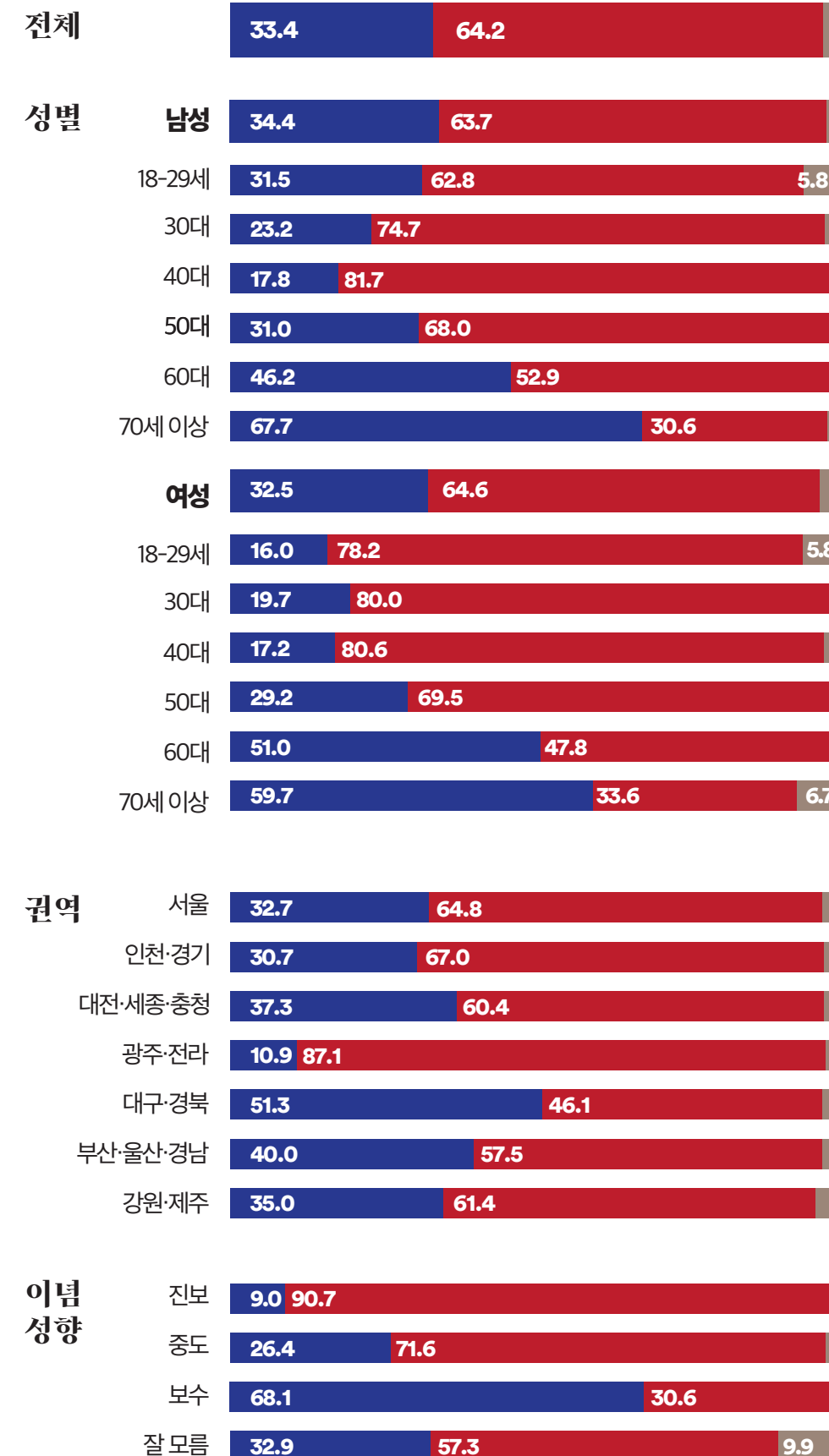
9월 통합 집계 국정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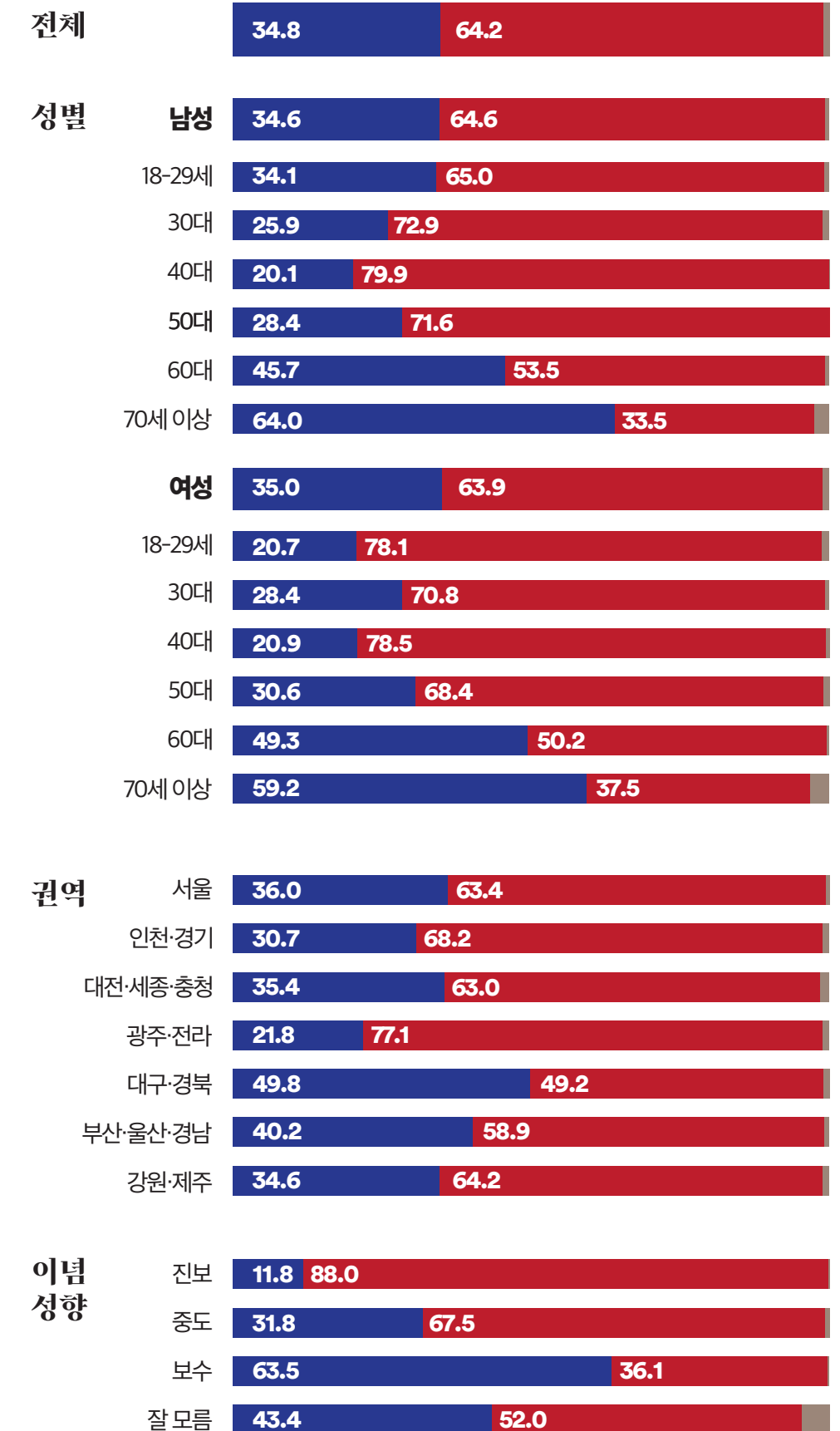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0
정례조사 기준 ARS n=4024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CATI



ARS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9_06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